



2002년 일본의 식육수급 전망

이번호에는 광우병 파동을 겪고 있고, 구제역으로 인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돼지고기 수입 재개 등이 일본 식육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일본 식육통신사가 전망('02. 1. 1. 발행, 식육통신)한 것을 발췌 게재한다.

일본의 5대 식육(소, 돼지, 닭, 말, 양·염소고기)의 수급량은 '95년 5,606.195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00년에 들어서면서 오랜만에 560만톤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01년에는 BSE(광우병)의 영향으로 '98년 수준까지 다시 급감하였다.

쇠고기는 지난해 9월 BSE가 처음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BSE의 영향으로 소비가 국내산, 수입산 모두가 감소하였다. 돼지고기는 수입급증으로 8월 1일부터 긴급조치(SG)가 발동되었으나 BSE의 발생으로 쇠고기 수요 감소의 대체 효과가 발생해 SG발동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수입이 급증하였다. 닭고기는 잔류농약과 질병분제로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 쇠고기

○ 수급동향

2001년도의 쇠고기 수급은 BSE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8.8%감소한 1,422천톤으로 추정(일본 식육통신사 추정)된다.

1991년 4월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4년간은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6년에 들어서서는 영국의 BSE파동과 장관출혈성 대장균(O-157)에 의한 식중독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여 소비량이 '95년 150만톤 이었던 것이 '96년에 140만톤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과 불경기 등으로 '98년까지도 소비량이 140만톤대에 머물렀으나 '99년에 150만톤, '00년에는 156만톤까지 공급되어 사상 최고치를 보이다가

〈소·돼지고기의 수급과 추이〉

(단위 : 톤)

구 분	소 고 기		돼 지 고 기	
	생 산 량	수 입 량	생 산 량	수 입 량
1993년	594,366	732,495	1,439,613	652,361
1994년	602,341	842,577	1,390,288	704,450
1995년	600,905	927,647	1,322,065	828,776
1996년	554,509	898,897	1,266,446	932,676
1997년	530,300	923,683	1,283,316	730,696
1998년	529,349	951,270	1,285,875	720,731
1999년	540,377	968,541	1,277,094	856,861
2000년	530,337	1,028,272	1,268,787	929,865
2001년	450,500	971,247	1,248,187	975,600
2002년	564,836	760,021	1,260,669	950,000

'01년 BSE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시 급감하였다.

금년 전반기는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한 BSE검사(全頭檢査)에서 BSE 소의 발견 여부와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 등의 후유증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한편 전년도에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던 9, 10, 11, 12월분의 국내산 소의 출하가 통상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더해져 공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쇠고기는 일본가입이 많이 진출해 생산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01년 말에 송아지 입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산은 계약수입이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이용될 수 있는 양만큼만 수입될 것으로 보아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02년도의 쇠고기 수입은 130만톤 전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생산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01년 3월 현재 육용우의 사육두수는 2,818천두로 전년도에 비해 0.2% 증가하였다. 그중 화우는 1,740천두로 0.1% 증가에 그쳤으나, 유용우(乳用牛)는 1,113천두로 0.5% 증가하였다. '02년 출하대상이 되는 '99년 후반기에 생산된 송아지 두수는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고, '00년은 0.6%정도 증가한 점으로 보아 출하두수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젖소의 경우 금년 출하대상이 되는 '00년 8월부터 '01년 1월까지의 젖소 기세우는 약 2% 증가하였으므로 2월부터 7월까지의 약 2.5%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02년도의 육우출하는 통계적으로는 화우 58만두, 젖소 71만두정도가 예상된다.

○ 쇠고기 수입

쇠고기의 수입은 '91년 4월 자유화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96년에 들어와 영국 등에서 발생된 BSE나 일본의 O-157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다. 그후 '97년에는 2.8% 증가한 후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여 '00년에는 1,028천톤까지 수입이 늘었으나, '01년에 발생된 BSE가 수입육에도 영향을 주어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쇠고기도 소비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 수입량이 급감하였다. 그 결과 '01년도의 수입량은 971천톤정도로 추정되고, 냉장육과 냉동육의 비율은 BSE의 영향으로 냉동육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50:50 정도로 추정된다. '01년 1~10월간

의 국가별 수입량(부분육 기준)은 호주 283천톤, 미국 268천톤으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수입량의 94%를 집하고 있다.

금년의 수입전망은 BSE가 앞으로도 발생될 것인가, 전두(全頭)검사로 안전성확보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인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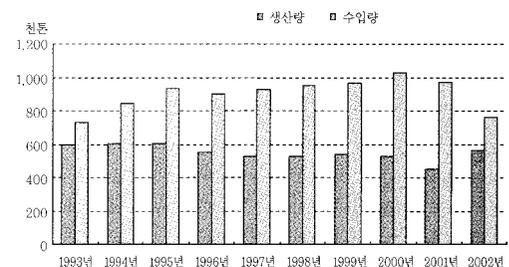
업계의 예측은 전년과 비교시 3~4월에는 30~40%, 4~9월에는 20~30% 감소될 것으로 보거나, 연간 70~80% 감소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나 회복되리라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쇠고기 소비

쇠고기 소비량은 수입자유화, UR합의에 의한 관세인하, 엔고(円高)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쇠고기수입의 소매가격도 마찬가지로 대폭 인하되어,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소비는 '95년까지 순조롭게 증가되었으나, '96년부터 유럽의 광우병, 일본의 O-157의 영향으로 소비량은 10%이상 감소했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75년 2.5kg에서 '96년 6.9kg, '98, '99년에는 7.3kg까지 증가되어 '75년에 비하면 2.9배에 이르고 있다.

'01년은 BSE의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룰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02년 또는 '01년과 마찬가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급현황〉



♣ 돼지고기

○ 수급동향

'02년도의 돼지고기 수급량은 전년실적을 밑돌던가, 전년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입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가 예상되어 '00년과 '01년 실적의 중간 정도가 될 것이다 '01년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기



해외정보

준 수입량을 상회하는 물량이 수입되어 SG가 발동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90년을 정점으로 감소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02년에는 1%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BSE의 영향으로 식육소비가 쇠고기로부터 돼지고기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국내생산

국내생산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96년 130만톤 수준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의 변화는 거의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림성이 '01년 2월 1일에 조사한 축산통계를 보면, 육돈의 사육두수는 9,785천두로 전년동기대비 0.2%감소하였고, 사육호수는 10,800호, 호당 사육두수는 906두이며, 전체의 80% 이상이 자동생산부터 일관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임 암퇘지는 920,900두로 0.9% 감소되어 육돈생산기반을 지탱하는 번식 모돈의 증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1년도는 1,248천톤이 출하되어, 전년보다 1.6% 정도 감소하였고, 출하 두수도 1,600만두 수준이다. '02년의 생산량은 1~3월의 경우 전년과 같고, 4월 이후는 2%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① BSE로 돼지고기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도배가격도 안정되어 있다. ② 양돈농가의 생산의욕이 높고 ③ 대규모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 확대 의욕이 높고 ④ 세계적으로 식육의 안전·위생에 관심이 높아 브랜드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⑤ '96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⑥ 외식산업의 성장과 흑돈(黑豚) 등의 브랜드 돼지고기생산과 같이 차별화된 상품 만들기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증산의욕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02년도는 1,260천톤, 전년대비 1%의 증가로 자급율은 57% 전후로 예상된다.

○ 돼지고기 수입

수입량은 수출국의 산지거래가격, 환율, FMD(구제역)나 돼지콜레라 발생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한국의 수입해금시기 등에 의해 수급동향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SG발동의 유무에 따라서도 수입량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FMD에 관해서는 유럽의 주요 돈육수출국인 덴마크 등 10여개 국가에서 발생이 없다면, '01년 봄과 같은

소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돼지 콜레라도 방역에 각국이 신경을 쓴다면 수입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회의에서 FMD청정화가 인정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금지는 빠르면 3월말에 해제될 수도 있다. '02년 각국의 대응을 보면, 최대수출국인 미국은 비교적 고가의 생체(生體)거래에 생산의욕이 높고, 수출마인드도 높아져 있어 '01년 수준인 23만톤 정도 수출할 것이다. 덴마크는 23만톤, 캐나다, 멕시코도 전년수준은 될 것이라고 본다.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수입금지가 해제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SG발동은 '02년 1/4분기의 발동기준량이 207,038톤으로 1개월 평균 69,000톤 수입이 가능하며 2/4분기는 1개월 평균 69,652톤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3/4분기에는 SG발동 가능성이 있다. '02년도의 예상 수입량은 부분육기준으로 65만톤(냉장육 20만톤, 냉동육 45만톤)정도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지육으로 환산하면 95만톤 전후로 전년보다 2.6%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금년에 쇠고기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돼지고기 소비

돼지고기 소비는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소비의 주력인 가계소비를 보면 3년간은 감소하다가, 3년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02년은 '01년도 수준이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요의 30%를 점하는 식육가공품업계의 경우는 전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며, 나머지 30%를 점하는 냉동·외식업계에서는 20만톤 정도 필요하므로 냉동육 중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급현황〉

